

희대의 살인사건과 계엄의 님은 꼴

이타적 유전자

박재항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영상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미국 LA 한 고급 주택가에서 개 한 마리가 불안한 티를 감추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었다. 산책 나온 동네 주민이 집을 찾아주려고 다가가자 반려견이 한 자락으로 들어갔다. 그 집의 개인이 싶어 따라가자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핏자국으로 얼룩진 보도의 끝인 현관 앞에 까만색 짧은 치마 원피스를 입고 한 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여성의 목은 거의 참수당한 듯, 깊게 칼로 베어져 있었다. 여성의 시신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살해된 젊은 남성이 역시나 칼로 난자 당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1994년 6월12일 밤이었다.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 살인 용의자의 이후 생애 등을 철저히 담아낸 다큐멘터리 4부작을 봤다. 지난 4개월 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겹쳐졌다. 두 사건 모두 처음 생각과 다르게 법적 처리가 이어졌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수습 방안이 미루어지고, 사회가 분열되어 대립하는 양태가 벌어졌다. 사건들의 기묘한 전개 상황을 쫓아가 보자.

시신이 발견된 주택의 입구에서 현관까지의 보도 위에는 핏덩어리가 뚝뚝 떨어

어가지 않고, 바깥에 세워진 차에서도 혈흔이 곳곳에 있었다. 모든 증거물들이 오제이 심슨이 살해자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증거가 차고 넘쳤다. 나중에 심슨의 변호를 맡은 이들 중 하나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 중에 증거물이 가장 많았던 사건이라고 할 정도였다.

심슨은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남자농구 대표팀을 일컬었던 '드림팀'이라고 부르며, 변호인단의 발언을 부각시키는 언론들이 나타났다. 변호인단의 조언을 받아 심슨은 LA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겠다고 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들은 현행범과 다를 바가 없으니 즉각 체포를 주장했으나, 경찰과 검찰 상층부에서 심슨의 명성과 지위를 고려하자는 방침에 밀렸다.

출두하겠다고 한 당일 심슨은 머물던 변호사의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과 2시간 이상 고속도로 규정 속도 이하로 달리는 기묘한 자동차 추격전을 벌였다. 심슨은 차 안에서 총을 들고, 자해 위협을 했다. 거의 모든 TV방송이 추격전을 생중계했다. 당시 미국 프로농구 결승 시리즈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계를 끊고 추격전을 보여줄 정도였다. 미국인 9500만명 이상이 시청했고, 나중에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구경을 나왔다. 중작적이 된 심슨의 집 앞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차에 태우고 나오는 광경은

중계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수천 명이 지켜보았다. 심슨을 경찰의 폭력에 당하는 흑인 피해자로 그리는 이들이 나타났다.

'큰 그릇에 듬뿍 담긴 스파게티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어찌됐는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못 먹고,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슨 사건의 증거를 두고,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중에 가장 증거가 많다고 한 변호사가 이런 비유를 했다. 그가 바퀴벌레로 지적한 사항들이다. 증거물 처리 과정에서 맨손으로 만진 것들이 있다. 수집 날짜가 지연된 것들이 있다. 증거물을 채취한 경찰 중 한 명이 인종차별주의자이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자신은 지난 5년 동안에 흑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었다. 특히 위증으로 몰아붙이고, 체포 장면이 반복하여 노출되면서 흑백 갈등이 전면으로 대두되었다.

유무죄를 주장하는 이들로 여론이 갈렸다. 양쪽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대립했다. 심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갈등 사태라는 이른바 LA폭동의 기억이 선명한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재판이었다. 단순한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다. 순번으로 거의 자동차로 하던 배심원 선정에도 인종, 성별 등의 안배를 한다고 며칠이 걸렸다. 모든 과정이 그렇게 지연되면서 양쪽 진영의 갈등은 격화되고, 재판은 질질 늘어

졌다. 법정으로 TV카메라가 들어오고, 재판 중계방송의 시청률이 CNN을 훨씬 상회했다. 재판에 관련된 이들의 신상이 털렸고, 무어라도 사건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돈벌이를 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작년 12월3일 아닌 밤중 흥두꺼처럼 선포한 계엄은 마치 1990년의 1차 걸프전처럼 모든 상황이 생중계되었다. 방송사의 카메라 몇 대에 의존한 것과 달리, 개인이 미디어로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상황을 모든 국민이 보았다.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와 불법 행위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기록되었다. 위법 증거들이 영상으로 조사 결과로 넘쳐난다. 대치, 체포, 기각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판결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탄핵 반대와 찬성의 양쪽 대립은 첨예해지고 있다. 계엄의 위법성보다 당파적 이득을 따지며 본질과 벗어난 말과 행동을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오제이 심슨 사건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심슨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바로 집으로 와서 축하 파티를 벌였다. 이후 민사에서는 유죄를 받아 살해된 이들에게 3500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고, 막 살아가던 심슨은 강도 행각까지 벌여 1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다. 가석방 후에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SNS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까지 했던 그는 작년에 76세의 나이로 어렸던 자연사했다.

새로운 개념의 산불대책 만들어야

기고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바짝 마른 낙엽이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타오르며 강한 바람은 불씨를 빠르게 확산시켜 산불 위력이 더욱 커진다. 이번 산불도 초속 15m의 바람에 확산 속도가 22년 발생한 울진 산불보다 2.5배가 빨랐다고 한다. 봄철 산불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전략이 있어야만 진화가 가능한 재난 상황이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에 제대로 된 예방법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먼저 임도 건설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임도는 소방차와 진화대가 진입하는 길이자 대피로인데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토지사용에 대한 산주들의 인기가 어렵고 생태계 파괴 우려로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임도 건설이 쉽지 않다.

길을 내는 것과 산불로 태워 버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산림을 더 훼손하는지는

명백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임도 관리 기준을 만들고 산주들에게서 토지를 수용해 임도를 건설 관리하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수종 교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불 피해를 줄이려면 확산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소나무 일색인 수종 구조는 불쏘시개나 다름없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남지역도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수 km를 날아가 불씨를 옮기며 송진은 화력을 더욱 증가시킨다. 수분 함유량과 수액이 많은 나무를 중심으로 혼합림을 조성하면 산불이 발생해도 확산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일부 위험 지역만이라도 수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사유림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 산림 면적당 일정 비율을 내화수림으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수종전환을 위해 벌채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내화력이 강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외래 수종을 도입하는 사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산불 진화용 헬기의 답수 용량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9대의 임차 헬기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1200L 이하로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4000L 이상의 진화 헬기 대형화가 신속한 진화에 필수적이다. 저수지 또한 많을수록 좋다. 산불의 길목이 될 만한 곳에 소규모 저수지를 지어 놓으면 그 자체로 방화벽이 되고 헬기의 용수 공급처로 이용되어 산불 진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진화 인력의 전문화와 장비의 현대화도 필요하다. 지자체가 기간제로 뽑아 운영하는 진화대원이 전문 소방인력이 아닌 지역의 고령자들로 구성된다면 점도 되돌아 봐야 한다.

산림인접 지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으로 이번에 산불을 끄다 희생된 진화대원 3명도 모두 60대이다. 진화대원들은 살수 기능을 갖춘 개조 트랙터나 등짐 펌프, 방화선 구축용 갈고리 등을 사용한다. 대형 산불 대응책임을 소형 산불 대응에 맞춰진 진화대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도민들에 대한 예방 홍보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총체적인 반성과 재점검을 통해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봄철 대형 산불이 뉴노멀로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도 언제든 대형 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제는 주민 대피, 진화 과정, 사후 복구 등에 대한 과거의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개념의 산불 재난예방과 진화 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이러한 대형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산불로 잃어버린 우리 숲을 복구하는데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며, 그 외적인 손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숲의 중요성을 알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은 출입을 삼가고 담뱃불,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